

“세월호 침몰은 선체 결함 탓...외부 충돌 아니다”

목포 해양심판원, 조타장치 고장·복원력 부족 등 조사위 판단 인정 “선체 충돌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침몰설 단정할 증거 없었다” 판단 세월호 참사 11주기 맞아 광주·전남 곳곳 추모 공간·행사 잇따라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앞두고 참사 원인이 선체 자체에서 비롯됐다는 해양안전심판원의 판단이 나왔다.

세월호 선체를 영구 보존해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다지고 안전 교육 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구상도 본격화된다. 참사를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한 예배와 추모행사도 잇따른다.

◇세월호 참사, 총체적 선체 관리 부실=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참사 주요 원인으로

조타장치 고장, 복원력 부족, 화물 과적, 선사와 선원의 안전관리 소홀 등으로 결론냈다.

해양심판원은 지난해 11월 26일 발표한 ‘여객선 세월호 전복사건’에 대한 특별심판부 재결을 통해 세월호의 급격한 전복은 조타수의 실수가 아니라, 조타기 고장 때문으로 판단하고 ‘조타기 2번 펌프의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이라는 2018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판단의 타당성을 인정했다.

‘선체 충돌 등 외부 요인에 대한 의혹’에는 ‘선박의 선체 손상 부위 등에서 이러한 전복 등을 발생시

킨 외력의 흔적이라고 단정할만한 것을 확인하지 못했고, 그러한 외력의 실체에 대한 타당한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여객 정원 확대를 위한 무리한 증개축, 복원성이 현저히 낮아진 상태에서 화물을 2배 이상 과적해 복원력을 잃은 것 등도 침몰 원인으로 판단했다.

해당 선박은 국내에 중고로 수입된 후 지난 2012년 10월 7일부터 2013년 2월 16일까지 영암군(현) C.C조선에서 여객공간과 화물공간 등이 증·개축됐다.

선장과 선원들이 승객을 퇴선시키지 않고 구조 요청만 한 점도 대규모 인명 피해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선장을 포함한 5명의 선원은 면허가 취소됐고, 청해진해운에는 시정 명령이 내려졌다. 청해진해운과 일부 관련자들은 이 같은 재결에 불복해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2심 절차를 밟고 있다.

심판원 관계자는 “2심에서 다섯 명의 심판관이 사건을 다시 판단하게 되며,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이후 공공용 재결서 형태로 홈페이지에 공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잊지 않겠습니다’ 추모 공간·행사 잇따라=세월호 참사 11주기를 앞두고 기념공간을 조성하고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추모 행사도 이어진다.

광주시교육청은 14일부터 18일까지를 추모 기간으로 지정하고, 각 교육기관과 함께 추모 영상 상영과 노란 리본 달기, 사이버 추모문 운영 등을 진행 중이다.

진도 팽목항에서는 15일 해상 현화를 포함한 추모식이 열리고, 참사 당일인 16일에는 목포신항에서 재단법인4·16재단 0416재단고기축협의회 소속 유가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상 추모식이 열린다.

같은 날 5·18민주광장에서는 광주 예술인 행동장과 시민 추모제가 개최된다.

세월호 선체를 영구·보존하면서 해양 안전 복합시설로 활용하는 ‘세월호 생명기억관’도 목포고하도 신항만 배후부지에 들어설 예정으로 내년 착공한다. 세월호 생명 기억관은 세월호 참사의 아픔에 대한 공감과 연대를 위한 해양 안전 복합 시설로 2029년 준공 예정이다.

광주시 자치구에서도 지역시민단체 주도로 기억 문화제가 개최된다. 15일 광주 남구 백운동 양우내 안에 앞, 서구 신암근린공원에서 추모행사 및 기억 문화제가 열리며 16일에는 북구청 앞 광장에서 추모 행사가 진행된다. 오는 20일에는 세월호참사11주기광양추모위원회가 광양시 서천면 음악분수대 앞에서 추모제를 연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4월의 대설주의보 구례군 지리산 노고단 정상이 14일 내린 눈으로 하얗게 뒤덮였다. 이날 구례에는 오후 4시를 기해 대설주의보가 발효됐으며 최대 2cm의 눈이 쌓였다.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 전남사무소 제공>

‘수선화 섬’ 신안 선도 ‘이달의 섬’ 선정

신안 선도(사진)가 한국섬진흥원이 선정하는 ‘4월, 이달의 섬’으로 뽑혔다. 선도는 주민들이 손수 기른 ‘꽃섬’으로, 수선화가 만개해 화사한 봄을 알리는 대표적인 섬으로 소개되고 있다. 최근 수선화축제(4~13일)도 열려 노란색으로 물든 섬과 푸른 바다의 이국적 풍경을 만끽한 여행객들도 많다.

선도(5.23km)는 섬의 생김새가 ‘매미’를 닮아 붙여진 이름이지만 ‘매미 섬’보다 현재는 ‘수선화 섬’이라는 이름으로 더 널리 알려져 있다.

‘수선화 섬’이라는 별칭은 섬 주민 현복순 할머니의 깊은 애정과 오랜 노력이 담겨 있다.

현 할머니는 서울 생활을 마무리하고 남편의 고향인 선도로 귀촌한 뒤 집 마당과 주변에 수선화를 심기 시작했다. 그 꽃들이 수십 년 세월



을 거머쥔 꽃동산을 이뤘고 이웃들도 하나둘 따라 심었고 신안군도 17종의 수선화 234만 구근을 심으면서 전국 최대 규모의 ‘수선화 군락지’로 발전했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농기원, 차 농축액 활용 향산화 미나리 개발

차(茶) 농축액을 활용해 향산화 성분인 카테킨이 함유된 기능성 미나리가 개발됐다.

14일 전남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카테킨 미나리는 기술원에서 육성한 찻잎으로 제조한 차 농축액에 미나리를 일정 시간 흡수시켜 제조했다.

처리 전 미나리에 비해 폴리페놀 함량은 3.6배, 카테킨류는 18.8배, 향산화 능력은 2.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술은 혈압조절, 해독 등의 효능을 지닌 미나리에 차의 향산화 성분을 더해 건강 기능성을 강화한 사례로, 기능성 농산물은 물론 건강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행만 전남도농업기술원장은 “차 농축액을 활용한 다양한 기능성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전남의 우수한 농산물을 기반으로 한 건강한 먹거리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급식실 폐암 산재 인정을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는 14일 “조리 중에 발생하는 유해 물질에 노출된 급식실 근로자들의 폐암 진단 사례를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2023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급식종사자 379명이 폐암 또는 의심 소견을 받았다”며 “이 중 기아차 광주공장 구내식당 조리원 2명도 폐암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노동부는 급식 노동자들의 폐암을 개별 사례로 치부해 산재 현황 파악이나 예방 대책을 외면하고 있다”며 “근로자들의 직업성 폐암을 산재로 인정하고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지구를 지킵시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지구의날 앞두고 19일 다양한 행사

올해로 55번째 ‘지구의날(4월 22일)’을 맞아 다양한 ‘지구 지키기’ 행사가 마련된다.

14일 광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19일 지구의 날을 계기로 한달 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 보호를 위한 실천 프로그램을 마련, 진행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오전 10시 광주시청 정문 앞에서 행사를 진행할 ‘지구의날 광주행사위원회’도 출범시켰다.

행사위원회는 광주지역 75개 환경·마을·교육 단체들로 구성됐으며 ‘우리 힘으로 GREEN 지구’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행사는 우선 지구의 날 본행사를 19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시청 앞 차 없는 거리에서 개최하고 38개 환경 체험 부스를 마련,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이외 ▲하루 한 끼 비건 챌린지 ▲농인문학 시민특강 ▲기후위

기 영화상영회 ▲쓰레기 없는 소풍 챌린지 등 일간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또 자전거 대행진과 어린이 환경그림대회, 자원순환장터 등도 마련한다.

행사는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모두가 행동하는 날’이 필요하다”고 탄소중립을 향한 시민 참여를 촉구했다.

한편, 지구의날은 1970년, 미국 시민 2000만 명이 참여한 환경운동에서 시작했다. 올해 국제 공식 슬로건은 ‘OUR POWER, OUR PLANET’이며, 화석연료 의존을 줄이고 재생 에너지 생산을 2030년까지 3배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